

# 마운드 재정비...KIA 신발끈 다시 묶는다

##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의 선발야구가 새로 시작된다.

원정 6연전을 소화한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한다. ‘선발진 재정비’가 새로운 한 주를 맞는 KIA의 핵심 키워드다.

KIA는 지난 4일 마운드에 정용운이라는 ‘임시 선발 카드’를 사용했다. 힘겨운 여름을 나기 위한 일부 후퇴의 전략이었다. 이날 예정대로라면 임기영이 선발로 등판해야 했지만, 선발진 휴식을 이야기했던 김기태 감독은 정용운에게 삼성 윤성환 상대라는 임무를 맡겼다.

생각하지 못했던 큰 소득이 있었다.

이날 많은 이들의 예상은 삼성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선발 무개가 윤성환으로 기운 데다 3연패와 시즌 첫 4연승으로 KIA와 삼성의 분위기가 엇갈린 상황. 또 김기태 감독이 고전했던 최형우가 결국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두 경을 연 경기는 13-3, KIA의 대승으로 끝났다.

1회부터 버나디나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얻어맞은 윤성환은 KIA 타자들의 폭격에 4이닝 9실점이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임기영 등 휴식 위해 투입한

임시선발 정용운 깜짝 첫 승

재충전 양현종 재도약 준비

‘7번의 테스트’ 김진우 탈락

심동섭 등 좌완 필승조 가세

물러났다. 반면 ‘3이닝’을 목표로 했던 정용운은 3이닝을 넘어 5이닝 2실점으로 2009년 프로 입단 후 처음 슬리투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선발진 재정비 차원에서 투입했던 임시선발로 귀한 승을 얻으면서 KIA는 기본 좋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임기영을 시작으로 앞선 로테이션대로 선발진이 운영된다면 최근 3경기에 극도로 부진했던 양현종도 1주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재충전하기에 넉넉한 시간이다.

일정 조정 속 선발진 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김진우가 선발진에

### ■ 2017 정규리그 순위 (5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승
1	KIA	36	0	20	0.643	0.0	1승
2	NC	33	1	21	0.611	2.0	4승
3	두산	29	1	23	0.558	5.0	1승
4	SK	29	1	25	0.537	6.0	2승
5	LG	27	0	27	0.500	8.0	3패
6	넥센	26	1	28	0.481	9.0	1패
7	롯데	26	0	28	0.481	9.0	1승
8	kt	24	0	32	0.429	12.0	1패
9	한화	23	0	32	0.418	12.5	2패
10	삼성	18	2	35	0.340	16.5	1패

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는 지난 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2이닝 4실점으로 조기 퇴장됐다. 2이닝 동안 57개의 공을 던진 김진우는 1피홈런 포함 6피안타 2사사구의 부진한 성적으로 7번째 선발 등판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 성적은 6.68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4패가 됐다. 7경기에서 탈삼진은 15개, 사사구는 24개(볼넷 18·몸에 맞는 볼 6개)를 기록했다. 폭투도 5개가 남았다. 제구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0.320의 피안타율로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1.84에 이른다. 여기에 7경기에서 3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면서 선발로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3일 김 감독은 “보신대로”라던 평가에 김진우의 7번째 등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조기 강판된 김진우를 대신해 4.1이닝을 막으며 무실점을 기록한 고효준의 자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여기에 김 감독의 선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호재도 생겼다. 고효준에 이어 정용운까지 좌완 선발 자원으로 급부상하면서 선발진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선발진과 함께 불펜 재정비도 필요하다. 부담 많은 김윤동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필승조 구축이 불펜 정비의 핵심이다.

지난 5월28일 KIA는 부진이 이어진 홍건희·박지훈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주문하며 한승혁을 동시에 말소하고, 최영필·김광수·심동섭을 호출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심동섭의 가세로 고효준, 정용운 세 명의 좌완이 불펜에 배치됐다. 그러나 ‘프로야구 최고령’ 최영필이 두 경기 만에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불펜 계산이 틀어졌다. 또 최영필을 대신해 처음 1군 무대를 밟았던 석석환 고졸 2년 차 남재현도 등 통중으로 5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선발야구의 틀을 가다듬는 KIA가 선발 재정비 속 불펜 고민까지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임창용

## ‘프로 400세이브’ 선의의 경쟁

오승환 389S·임창용 381S

‘끝판왕’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창용불패’ 임창용(41·KIA 타이거즈)이라는 겹줄한 ‘소방수’가 같은 시대에 활약하는 걸 지켜보는 건 야구팬에겐 행운과도 같다.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술밥을 먹기도 했던 오승환과 임창용은 한국과 일본, 미국 야구를 모두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5년 삼성에서 데뷔한 오승환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한신 타이거스에서 활약한 뒤 지난해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했다. 데뷔 첫해인 2005년을 제외하면 마무리 투수로만 활약했던 오승환은 지난해 7월부터 뒷문을 맡아 올해도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프로 23년 차 임창용은 2007년까지 삼성에서 뛰다 아쿠르트 스왈로스스와 계약, ‘수호신’으로 뒷문을 지켰다. 임창용은 2013년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고, 팔꿈치 수술로 재할이 끝난 뒤 9월 꿈에 그리던 빅리그 마운드를 밟았다.

이후 2014년에는 삼성과 계약해 KBO 리그에 컴백했고, 지난해부터 KIA에서 활약 중이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프로 통산 400세이브 달성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프로 23년 차 임창용은 2007년까지 삼성에서 뛰다 아쿠르트 스왈로스스와 계약, ‘수호신’으로 뒷문을 지켰다. 임창용은 2013년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계약했고, 팔꿈치 수술로 재할이 끝난 뒤 9월 꿈에 그리던 빅리그 마운드를 밟았다.

이후 2014년에는 삼성과 계약해 KBO 리그에 컴백했고, 지난해부터 KIA에서 활약 중이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프로 통산 400세이브 달성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KBO리그 277세이브, 일본프로야구 80세이브를 올린 오승환은 32세이브 더하면 프로 통산 389세이브를 적절했다. 프로 23년 차 임창용은 선발로도 적지 않게 뛰며 오승환보다 누적기록이 다소 부족하다. KBO리그 253세이브, 일본프로야구 128세이브를 더해 통산 381세이브가 된다.

한국인 통산 400세이브는 당분간 깨기 힘든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 부문 3위는 KBO리그 214세이브, 일본프로야구 10세이브, 호주프로야구 35세이브를 올린 구대성으로 통산 259세이브를 남기고 은퇴했다.

통산 400세이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오승환이다. 오승환은 올해도 변함없이 세인트루이스 뒷문을 지키며 13세이브를 올렸고, 불펜세이브는 단 2번뿐이다.

임창용은 프로 통산 400세이브와 KBO리그 세이브 역대 1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 임창용이 앞으로 25세이브를 더하면 오승환이 보유한 KBO리그 최다 277세이브를 넘어설 수 있다.

통산 400세이브는 마리아노 리베라(은퇴·652세이브)를 비롯해 메이저리그에서 단 6명밖에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일본에서는 이와세 히토키(주니치 드래건스)가 통산 402세이브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통산 400세이브는 마리아노 리베라(은퇴·652세이브)를 비롯해 메이저리그에서 단 6명밖에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일본에서는 이와세 히토키(주니치 드래건스)가 통산 402세이브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지성이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마이클 캐릭의 자선 경기에 2008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들과 함께 2008년 맨유팀으로 참가해 그라운드를 누볐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뛰었던 박지성(36)이 오랜 만에 옛 동료들과 발을 맞추며 축구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박지성은 5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마이클 캐릭의 자선경기에 출전해 90분 동안 경기장을 누볐다.

이날 경기는 2006년 맨유에 입단한 캐릭의 현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는데, 박지성은 2008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

## 박지성 예전 그대로네

맨유 유니폼 입고 자선경기 풀타임 뛰어

피언스리그 우승 멤버들과 함께 2008년 맨유팀으로 참가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라이언 깁스, 폴 스콜스, 웨인 루니, 에브라 등이 한 팀을 꾸렸다.

상대 팀 캐릭 올스타는 존 테리를 비롯해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퍼드, 마이클 오언 등이 나섰다.

박지성은 당당히 선발 명단에 출전했다. 그는 오른쪽 윙으로 출전해 교체 없이 90

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수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후반전엔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 2-2로 맞선 후반 43분 빈 골문에서 결정적인 상대 슈팅을 견어내며 무승부를 이끌기도 했다.

박지성은 경기 후 올드 트래퍼드를 가득 메운 맨유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완전체’ 슈틸리케호...카타르전 모드로

J리거 아랍 캠프 합류...24명 ‘베스트 11’ 경쟁 돌입

카타르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슈틸리케호가 ‘마침내’ 완전체를 이뤘다.

5일 (이하 한국시간) 한국 축구대표팀이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베이스캠프’를 차린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카이마에 일본 J리거들이 합류했다.

권순태(가시마 엔트러스), 김승규(벵셀 고베),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김민혁(시간 도스) 등 4명은 대표팀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전날 밤에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홍정호(장쑤 쑤닝)가 합류했다.

J리거들을 끝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와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기 위한 24명의 태극전사들이 모두 집결했다. 지난달 22일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명단을 발표한 지 딱 2주 만이다.

대표팀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성용(스완지 시티), 손흥민(토트넘) 등 유럽파와 일부 K리거를 중심으로 12명이 조기 소집 훈련을 해왔다. 아시아는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유럽 리그는 시즌이 끝났

기 때문이다.

장현수(광저우 푸리)는 지난 1일 들어왔고, 황인수와 이창민(제주)가 3일 인천공항에서 합류, 15명이 현지로 출발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도착과 함께 황희찬(잘츠부르크), 남태희(레키아), 이명주(알아인), 박주호(도르트문트)가 빈 자리를 채웠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소집 기간은 5일부터 공식 시작됐다. 그러나 선수들은 카타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속팀의 협조를 얻어 가능한 한 일찍 대표팀에 합류해 손발을 맞춰 왔다.

선수들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숙소에서 화기에 애환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14일 치르는 카타르전에 대한 긴장감도 늦추지 않았다.

대표팀 구성이 완료되면서 슈틸리케 감독은 24명 전원이 참석하는 첫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들도 11자리를 꿰차기 위한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 김인경 LPGA 슐라이트클래식 우승

김인경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슐라이트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김인경은 5일 미국 뉴저지주 켈러웨이의 스타틴 시류 호텔 앤드 골프클럽(파71·615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02타의 성적을 낸 김인경은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레인우드 클래식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은 김인경은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5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

2012년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현재 ANA 인스퍼레이션) 최종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30cm 파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에 끌려들어 간 김인경은 결국 다 잡았던 메이저 우승을 놓치고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후 LPGA 투어에서 이번 대회까지 2승,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에서 2승을 수확하며 ‘30cm’ 악몽에서 벗어났다.

신지은과 이정은(29), 재미교포 미셀 위 등이 7언더파 206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박성현은 이날 6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5언더파 208타,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13개 대회 가운데 7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